2024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봄시즌 특별초대기획전시

전라남도 명예예술인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목포) 미술전

초대작가

강수남 | 곽창주 | 김광숙 | 박재옥
손영선 | 이웅성 | 정다운 | 주권옥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2024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봄시즌 특별초대기획전시

전라남도 명예예술인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목포) 미술전

2024. 5. 3 금 – 6. 30 일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1층

※ 휴관일 : 1월 1일, 매주 월요일 (관람료 무료)

초대작가

강수남 | 곽창주 | 김광숙 | 박재옥
손영선 | 이웅성 | 정다운 | 주권옥

주최
주관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58729 전남 목포시 유달로 116 ☎ 061-270-8300

인사말
Greeting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의 특별초대기획 전시'전라남도 명예 예술인(목포) 미술전'개최를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하며 전시회를 준비해주신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기획 전시회를 위해 훌륭한 작품을 출품해 주신 강수남, 곽창주, 김광숙, 박재옥, 손영선, 이웅성, 정다운, 주권옥 여덟 분의 작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은 그동안 다양한 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전시회를 기획해 지역 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자극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 전시 또한 우리시 미술 분야에서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되어 예향 목포의 명성을 드높인 여덟 분의 한국화, 서양화, 서예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예술적 성취도와 사회적 기여도가 높아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된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통해 남도 미술의 본질을 확인하고, 목포 미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예향 목포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써 관람객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친 몸과 마음에 활기를 더해보길 바라며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과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으로 목포 미술계를 빛낸 여덟 분의 초대 작가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5. 3.

목포시장 **박홍률**

축 사
Congratulatory Speech

자연의 싱그러움이 날로 생명력을 더해 가는 계절에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봄시즌 특별기획전시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목포) 미술전'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을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양하고 많은 전시회들이 연달아서 개최되고 있는 것은 문화도시라는 목포의 도시 브랜드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초대전은 예향 목포의 명성을 드높인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여덟 분의 작품을 담아낸 전시로써, 한국화, 서양화, 서예 등 목포 미술 정체성과 지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마련된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가족과 함께 수준 높은 문화와 예술을 감상하시며, 일상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이 수준 높은 작품으로 시민들의 가슴 깊이 자리 잡아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문화와 예술 공간으로 사랑받기를 기원합니다.

2024. 5. 3.

목포시의회 의장 **문 차 복**

축 사
Congratulatory Speech

싱그러운 계절에 원로예술인의 전시인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목포) 미술전”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향의 고향인 우리 지역을 지키면서 긴 세월 동안 열정을 다해 지역 예술 발전에 힘쓰신 명예 예술인 작가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고향을 지키면서 수십 년 동안 지역민과 함께 하고 흔들림 없이 본인의 예술세계를 확립하여 왔기에 전라남도에서는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목포를 대표하는 명예 예술인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한 자리에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전시회를 통해서 예향의 정통성과 작가의 열정을 느낄 수 있으며 후배 작가에게 영감을 주고 시민 여러분께는 예술의 감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시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져 예향의 명성과 향기가 널리 퍼지길 기원해 봅니다.

다시 한번 전시회를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승과 명예 예술인 작가님의 무궁한 창작 활동을 소망합니다.

2024. 5. 3.

한국미술협회 목포지부 지부장 **윤 석 수**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목포) 미술전

전시개요의 글
Exhibition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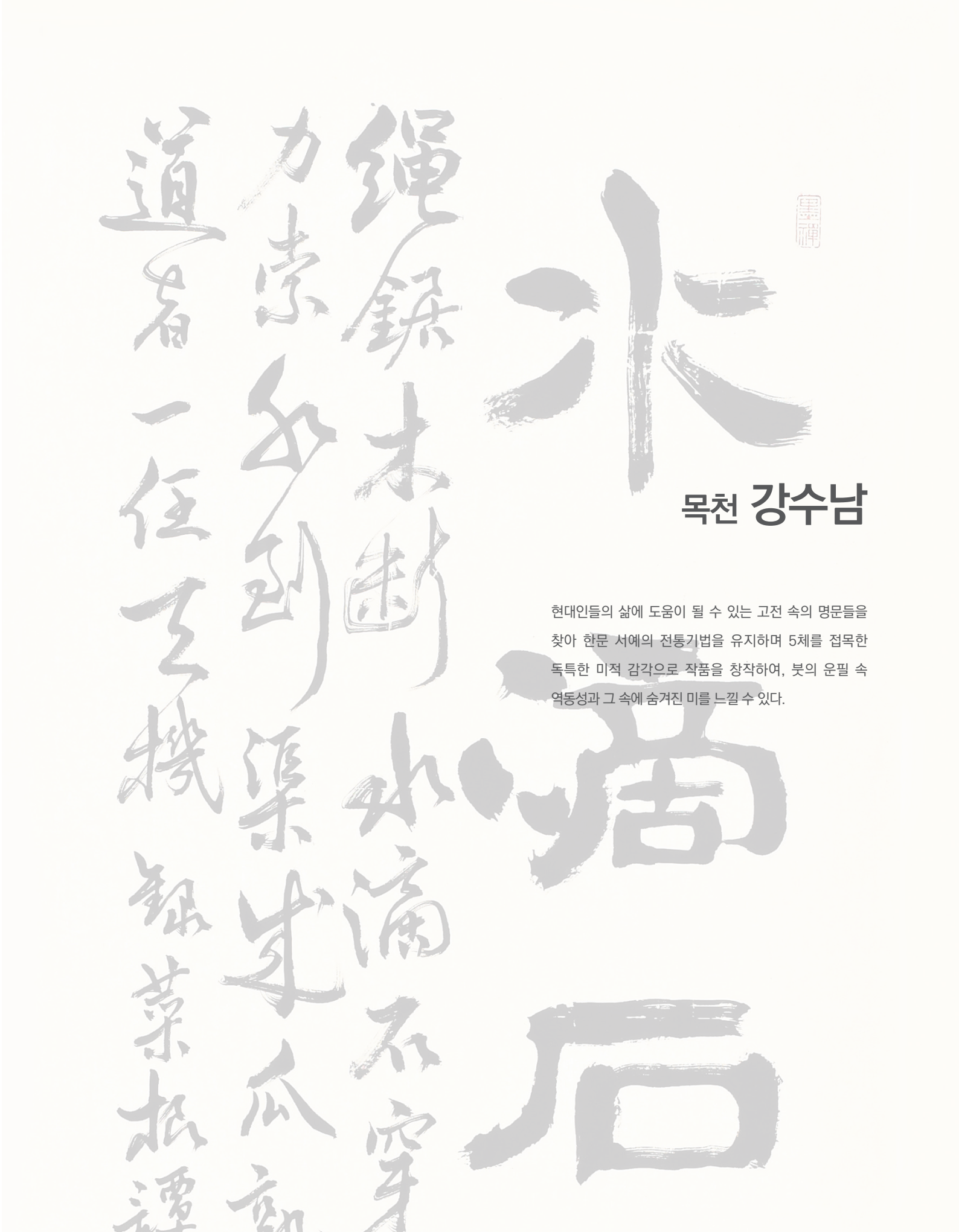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전남-공립13-2014-01호)의 봄시즌 특별초대기획전시로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목포) 미술전〉을 개최한다. 전라남도는 지역의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이바지한 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한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미술, 음악, 문학,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등의 분야에서 예술적 성취도와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예술인을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하여 우대하고 있다.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목포) 미술전〉은 2023년 우리시 미술 분야에서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되어 예향 목포 미술의 명성을 드높인 8인의 명예 예술인의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활발한 창작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지역 미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명예 예술인은 30년~60년 이상 목포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왔으며 국내외에서도 다양한 전시에 초대되어 인정받고 있는 작가들이다. 이번 전시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시각에 포착되어 시대성과 지역성, 정신성을 담아낸 작품들로 구성하여 목포 현대 미술 화맥의 계승과 발전상을 볼 수 있다.

고전에서 찾은 명구들을 전통 서예의 기법과 본인만의 독특한 미적 감각을 접목한 고유한 서체로 탄생시킨 목천 강수남의 작품들에서는 고요한 파동과 울림이 느껴지며, 전통 한국화에서 절제된 조형 언어로 사유의 폭을 확장시키는 일포 곽창주, 우리 지역에서 한글서예로는 유일한 작가인 한솔 김광숙은 인간의 삶을 깊이 헤아리는 기도하는 마음의 글들로 우리 글씨의 우수성과 정체성 확립 등 한글서예의 진흥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자신만의 예술 언어로 현대미술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형태를 새로운 사유 방식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남강 박재옥, 남도의 향토적 서정이 깃든 자연 풍경들과 길 위에서 만난 꽃들의 향연을 만끽하는 여인의 꿈, 평화롭게 잠든 고양이의 모습에서 손영선의 소박하고 정겨운 남도 여정이 펼쳐져 있다. 80년대 꽁꽁 얼어붙은 목포항 선창가 삶의 애환과 유년 시절 뒹굴며 꿈을 키웠던 보리밭 언덕을 청보리의 꿈으로 재창조한 이웅성, 하루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주황빛 하늘 아래 항구도시 생활의 단편이 담긴 풍경을 모티브로 심금을 울리는 정다운, 섬세한 선묘와 향토적 색채로 사계의 순환을 화폭에 표현하며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전통과 현대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탐험 중인 초원 주권옥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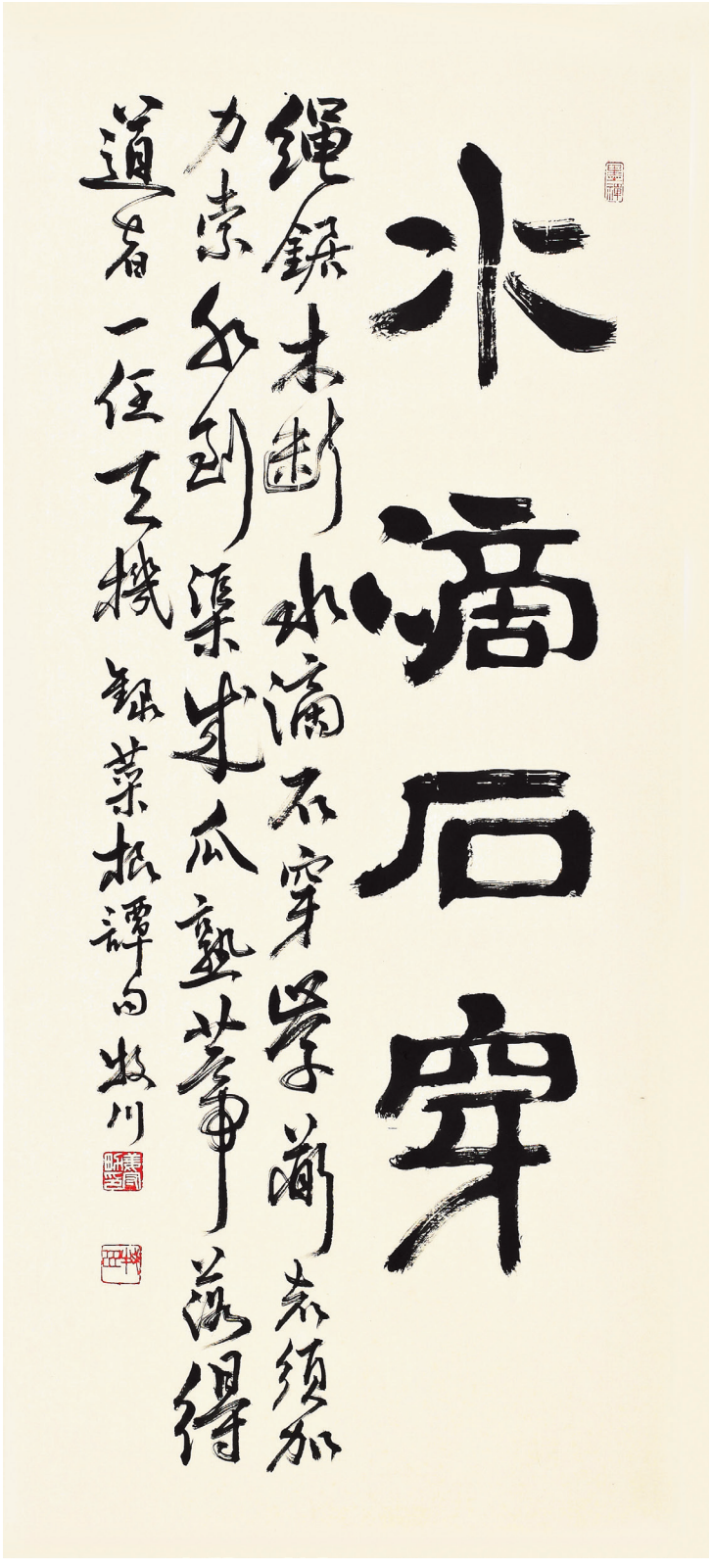
우리는 예술가의 체험과 정신이 진솔하게 담긴 작품을 보았을 때 공감하고 감동한다.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며 오직 예술 정신을 묵묵히 이어오고 있는 목포 미술분야 명예 예술인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를 통해 남도의 풍광들을 각자의 조형 언어로 깊이 새김으로써 예술과 시대가 어떻게 동행하는지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하며 글과 그림에 담긴 정신을 느껴보길 기대한다.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김 유 진** 큐레이터



목천 강수남

현대인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전 속의 명문들을 찾아 한문 서예의 전통기법을 유지하며 5체를 접목한 독특한 미적 감각으로 작품을 창작하여, 붓의 운필 속 역동성과 그 속에 숨겨진 미를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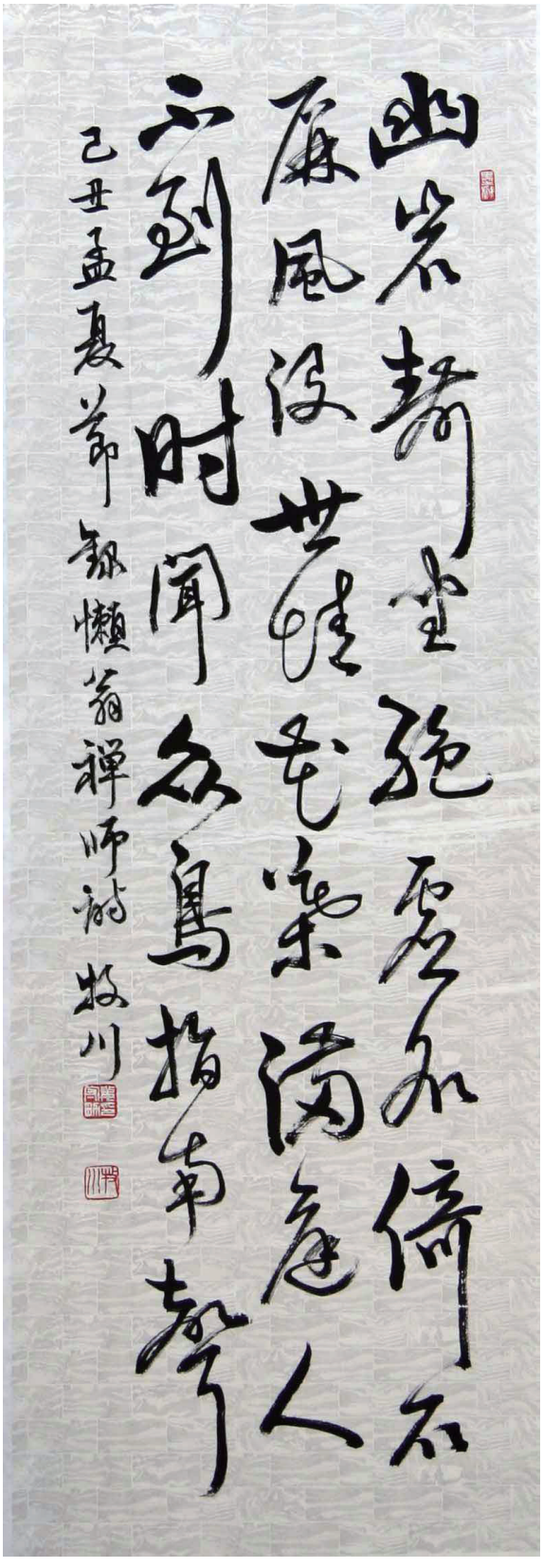


水滴石穿 수적석천
물방울도 돌을 뚫는다

繩鋸木斷 水滴石穿 學道者須加力索
水到渠成 瓜熟蒂落 得道者 一任天機
승거목단 수적석천 학도자수가력색
수도거성 과숙체락 득도자 일임천기 – 菜根譚 句 –

새끼줄도 톱 삼아 쓰면 나무를 자를 수 있고 물방울도 돌을 뚫는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힘써 구하기를 다해야 할 것이니
물이 모이면 내를 이루고 오이도 익으면 꼭지가 떨어지는 법이다
도를 얻으려는 사람은 한결같이 하늘의 현묘한 작용에 맡겨야 한다
– 채근담 구 –

수적석천
70×135cm, 한지에 먹,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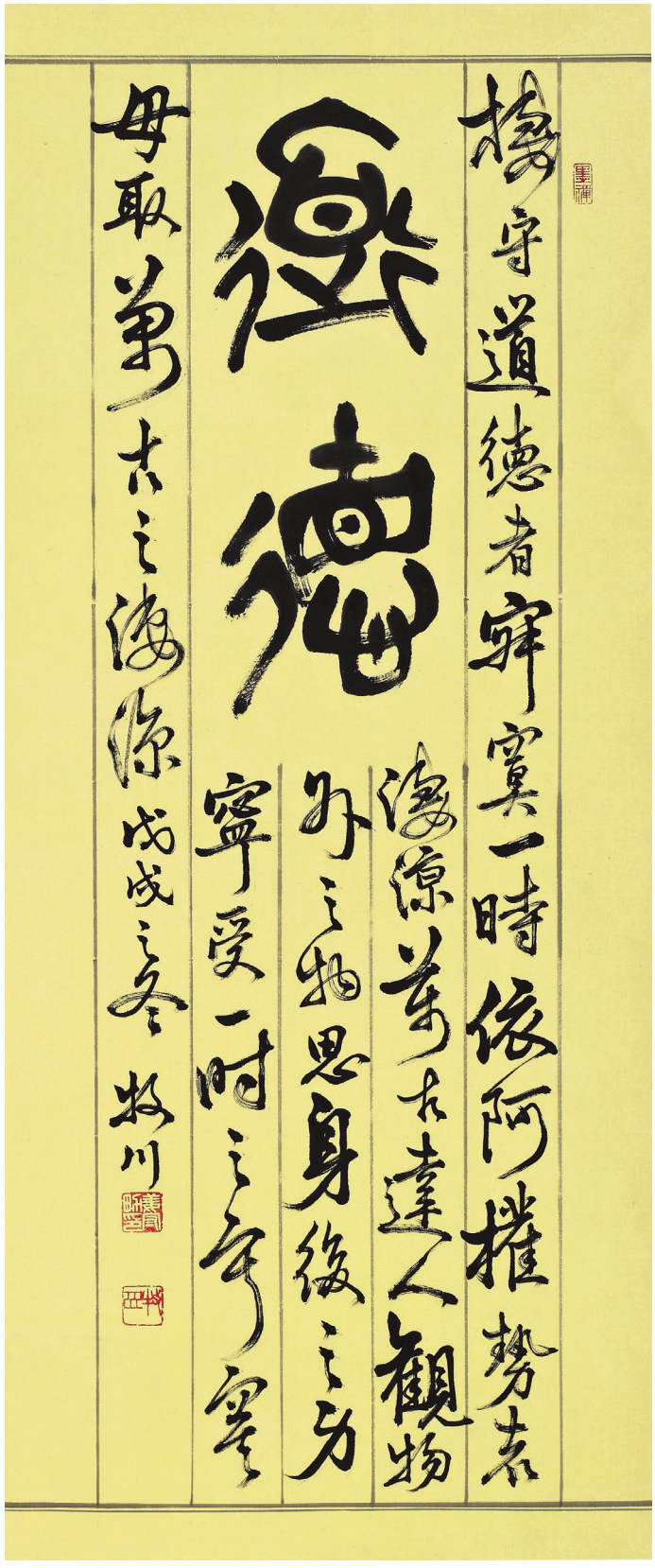


山居 懶翁禪師 詩

幽巖靜坐絶虛名 倚石屛風沒世情
花葉滿庭人不到 時聞衆鳥指南聲
유암정좌절허명 의석병풍몰세정
화엽만정인부도 시문중조지남성

그윽하게 바위에 고요히 앉아 헛된 명성 끊고
돌 병풍에 기대앉으니 세속의 정이 사라지네
꽃과 잎이 뜰에 가득한데 사람은 오지 않고
때때로 들려오는 뭇 새소리는 나를 깨우쳐 주네

나옹선사시
50×135cm, 한지에 먹,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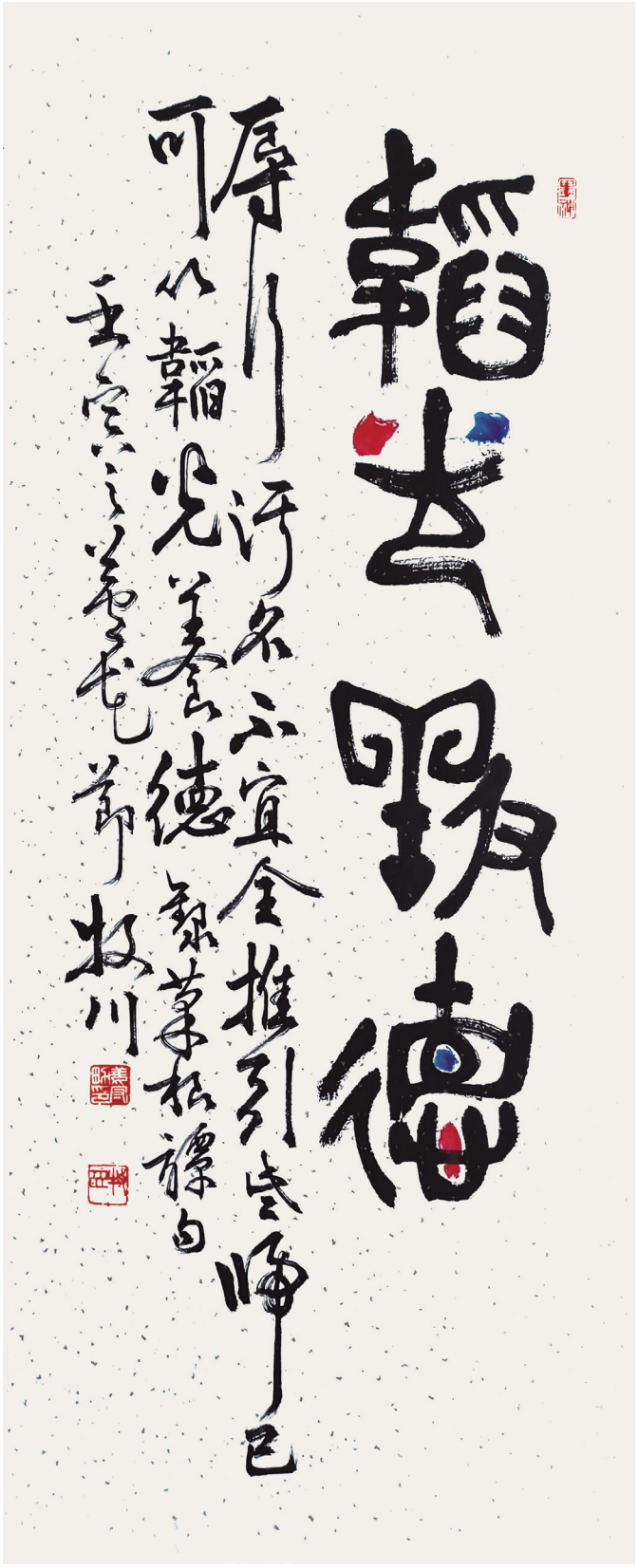


道德 : 道
진리, 진실, 이른바 도덕의 근원을 이루는 것

棲守道德者 寂寞一時 依阿權勢者 凄涼萬古 達人觀物外之物 思身後之身 寧受一時之寂寞 毋取萬古之凄涼
서수도덕자 적막일시 의아권세자 처량만고 달인관물외지물
사신후지신 녕수일시지적막 무취만고지처량

도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한때 적막하지만
권세에 의지하여 아부하는 자는 만고에 처량하다
달인은 물외의 물을 보고 신후의 신을 생각한다
차라리 한때의 적막을 받을지라도
만고의 처량함을 취하지 말라

도덕
70×135cm, 한지에 먹, 2018



韜光養德 도광양덕
빛을 감추고 덕을 기르다

辱行汚名 不宜全推 引些歸己 可以韜光養德
욕행오명 불의전추 인사귀기 가이도광양덕

욕된 행실과 더러운 이름은 온전히 남에게 미루어서는 안 되니
조금은 끌어다 나에게 돌려야 빛을 감추고 덕을 기를 수 있다

도광양덕
70×135cm, 한지에 먹,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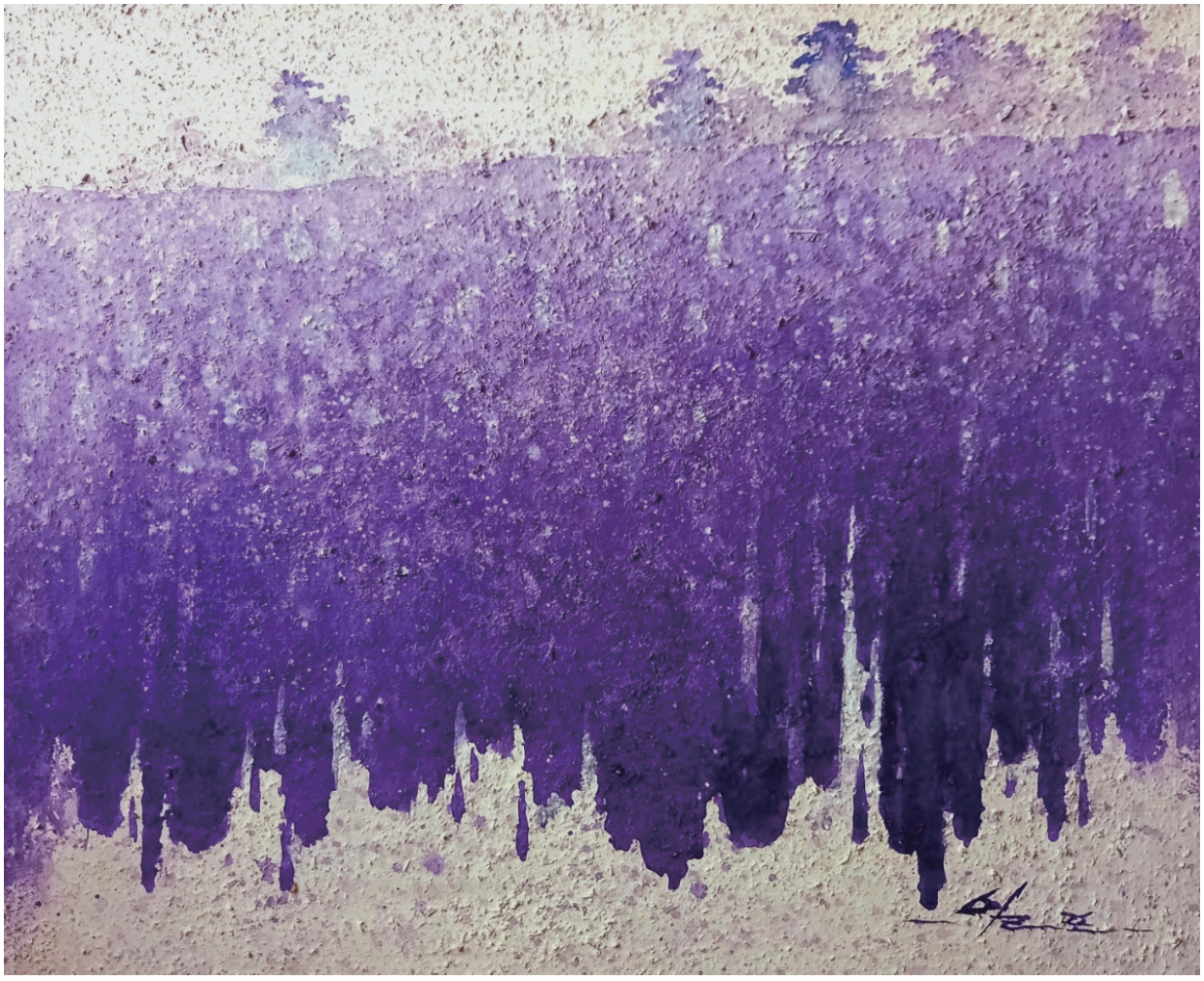
일포 곽창주

예향 목포 미술혼을 찾아서 –

1979년 국전 입선을 시작으로 화가의 길을 걸어온 지 40여 년이다. 초년은 전통 수묵에서 시작하여 구상회화와 추상회화를 섭렵하였으며, 화면에서 특정한 감정들을 재해석하고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실험하고 개성 있는 작업을 추구한다.

해후
60×70cm, 장지 위에 혼합재료, 2023

신록
64×85cm, 수묵채색, 2021



잊혀진 계절
58×70cm, 수묵화, 2022

퇴근길
80×120cm, 수묵화, 200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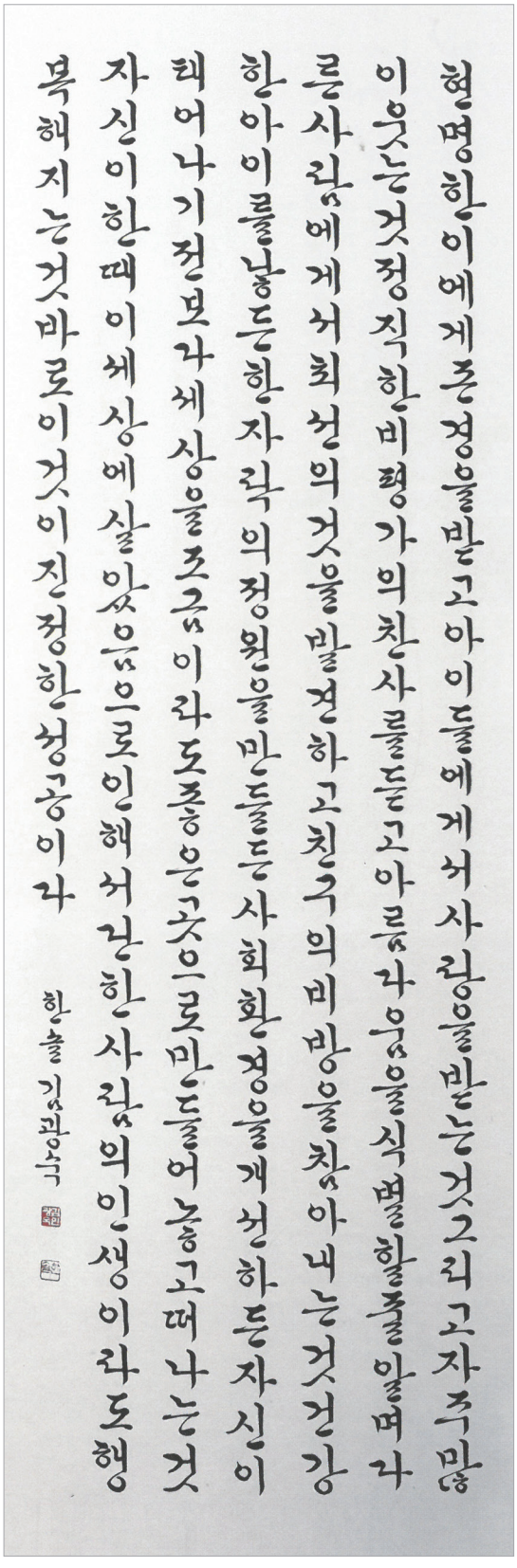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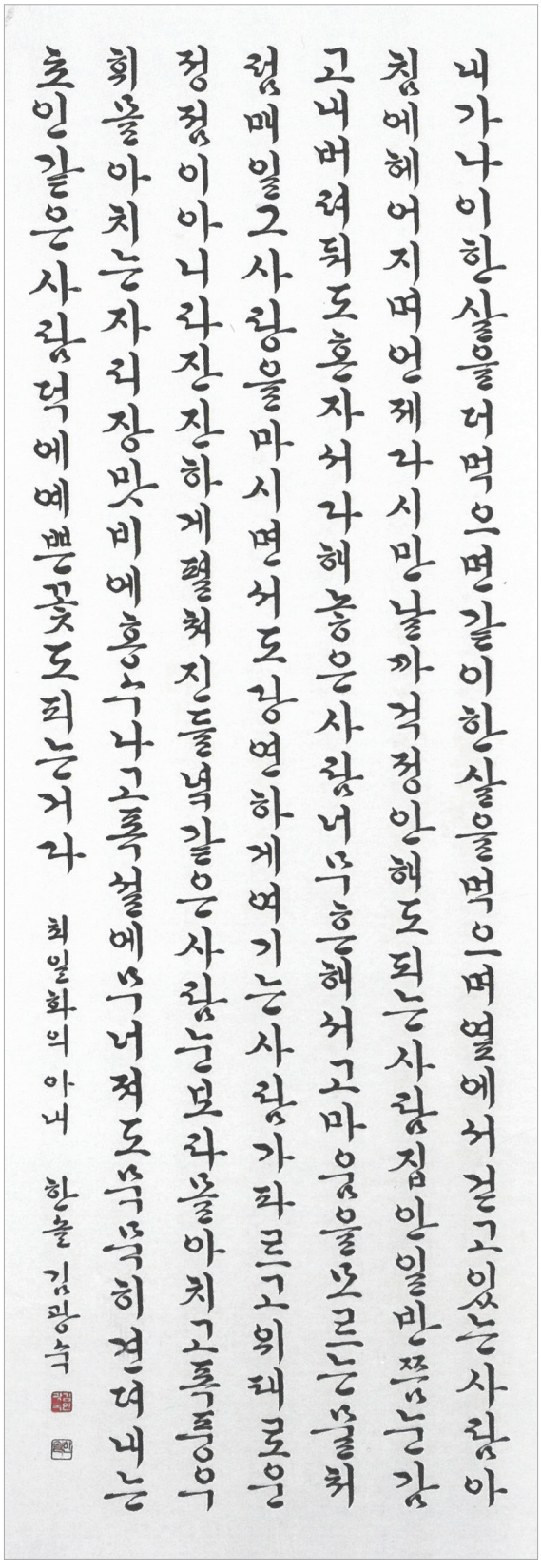
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한솔 김광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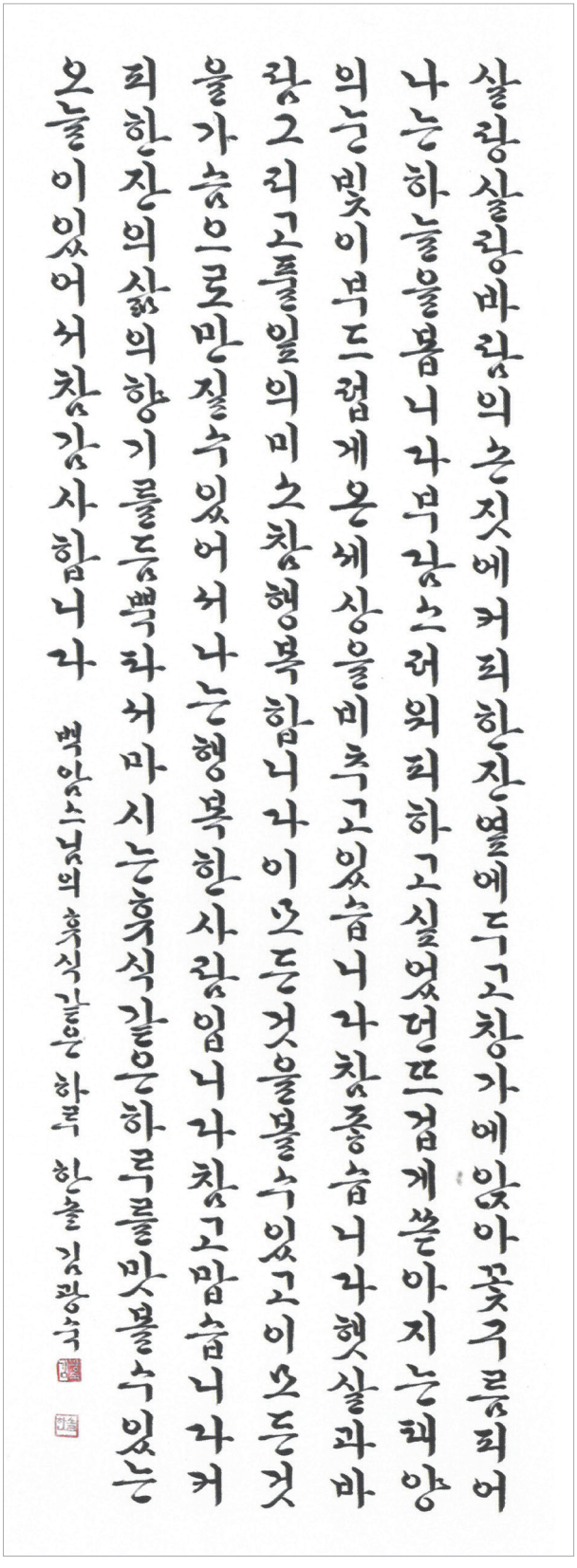
한글서예의 불모지인 목포에서 한글서예를 공부하기 위해 서울로 광주로 다니며 고생한지 40년, 목포에 최초로 한글서예학원을 연 지 11년 차이다. 목포 미술협회 서예 분과 회원 중 한글 작가로 외로이 활동한 지가 40년이 되었다. 한자 서예를 해야 위신이 서고 알아주는 우리의 현실이 무척 안타깝다.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한글서예의 진흥을 위해 우리 글씨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위해 힘쓰겠다. 우리 국민의, 서예인들의 인식이 바뀌길 기대하며 전통, 정통 한글서예의 지도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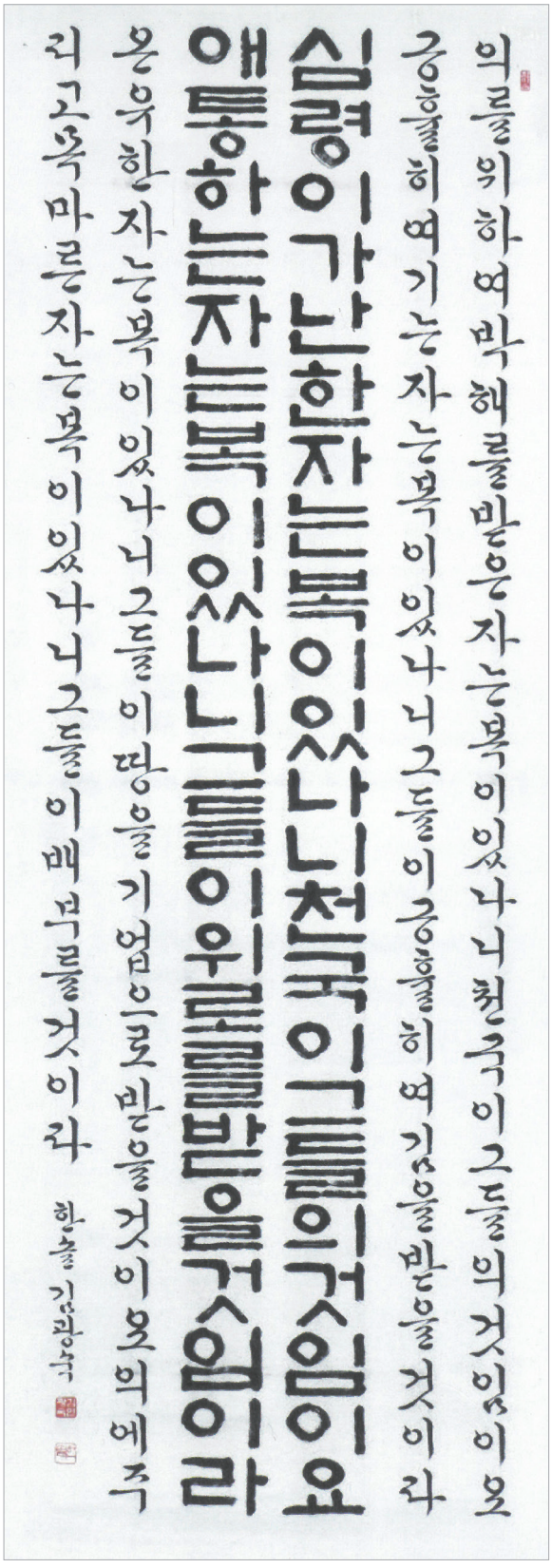
진정한 성공
70×200cm, 화선지에 먹, 2019



아내
70×200cm, 화선지에 먹, 2020



휴식 같은 하루
70×200cm, 화선지에 먹, 2022



마태복음 5장
70×200cm, 화선지에 먹, 2021

남강 박재옥

치자 쪽색, 마지에 아크릴, 분채, 석채, 편채 등 다양한 재료로 자신만의 예술 언어를 구축하여 현대미술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형태를 새로운 사유 방식으로 표현하고 전달한다.

시중유화
72×60cm, 마지에 혼합재료, 2023

비상
50×100cm, 목재마지, 2023

유달산
67×55cm, 수묵담채, 2023

인연
70×100cm, 수묵담채, 2024

손영선

자연과의 묵시적인 교감으로 인간주의를 실현

빛과 강렬한 색채가 어우러진 자연미의 극치를 화폭으로 끌어 들였고, 감수성이 예민했던 꿈 많은 소년시절에도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자연 속에 묻혀 묵시적인 교감을 하면서 자연과의 대화를 즐겼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다채로운 풍광의 묘사, 가시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직관에 의하여 시계에 받아 드려진 것을 심상 속에서 재수렴하고 여과하여 필요한 진구만을 요약한 또 다른 자연을 만들어 내었다.

활짝 핀 복사꽃이나 매화꽃이 봄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산록이 우거진 싱그러운 여름풍경, 얼굴이 붉게 타오르는 오색의 빛깔, 오염된 세상의 잡스러운 것들을 말끔히 씻어 내린 겨울철의 풍광 등 자연을 찬미하는 작가의 조형세계는 모자람이 없다. 아뜨리에에 쌓인 수많은 작품들은 작가의 정열과 혼이 만들어낸 분신들이다.

낳고 길러준 남도의 자연풍광을 비롯한 전국 방방곡곡을 손금 들여다보듯이 누비면서 그리고자 하는 충동이나 감정만일면 주저하지 않고 소재로 담고, 자연이 위대한 스승인 것처럼 자연속에서 배우고, 살찌고, 인간으로서의 성숙을 해 가는 것이다.

꼭 명승, 명찰만이 아닌 일상 보아 온 평범한 생활 주변의 소재들이 화폭 속에 수 놓아지는 것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독 선택적으로 보지 않으며, 자연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있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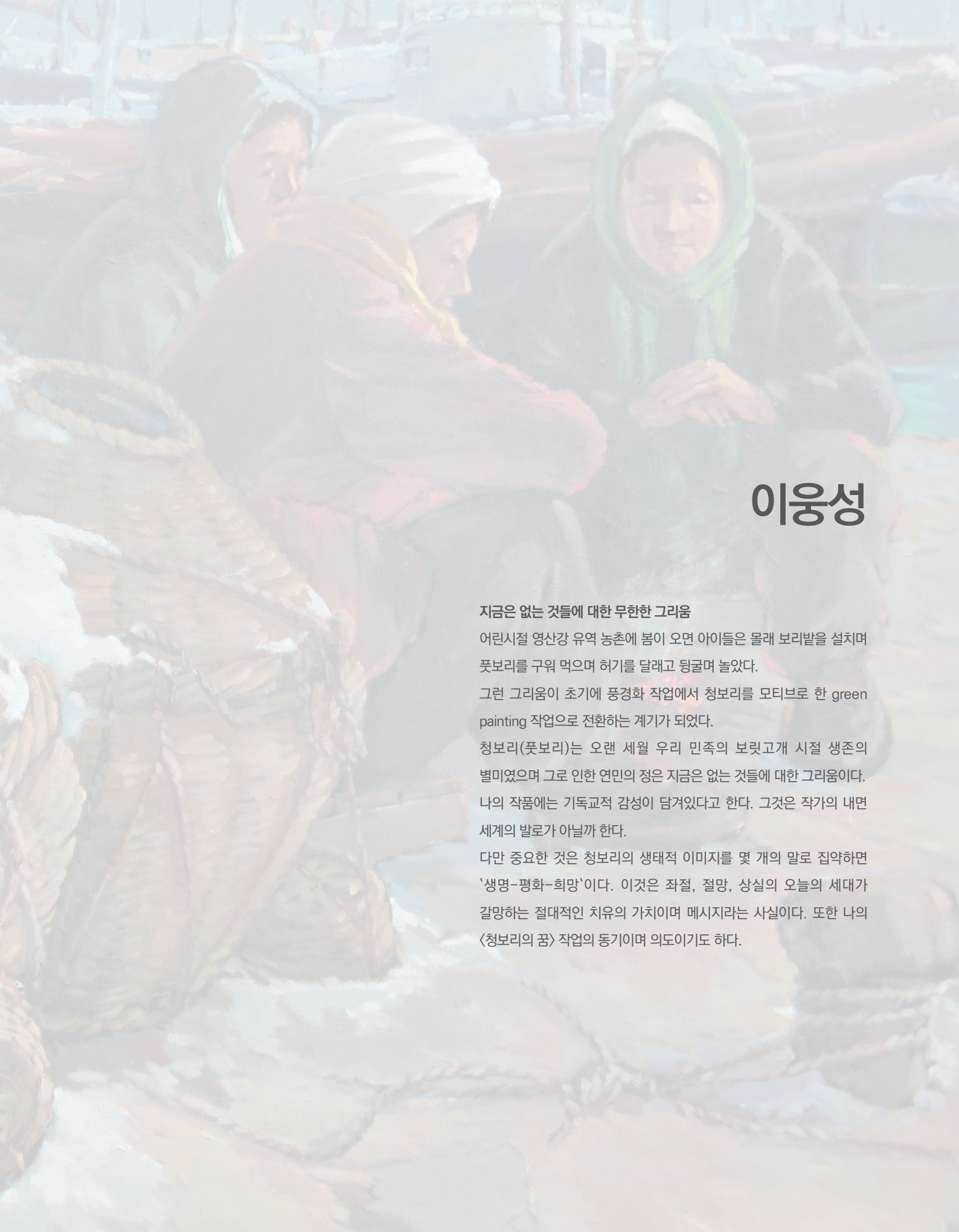
김남수 미술평론가

무안해변
162.1×75cm, Oil on Canvas, 2023

고양이의 꿈
90.9×72.7cm, Oil on Canvas, 2023

여인의 꿈
116.8×91.0cm, Oil on Canvas, 2019

목포항
162.1×70cm, Oil on Canvas, 2023



이웅성

지금은 없는 것들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

어린시절 영산강 유역 농촌에 봄이 오면 아이들은 몰래 보리밭을 설치며 풋보리를 구워 먹으며 허기를 달래고 뒹굴며 놀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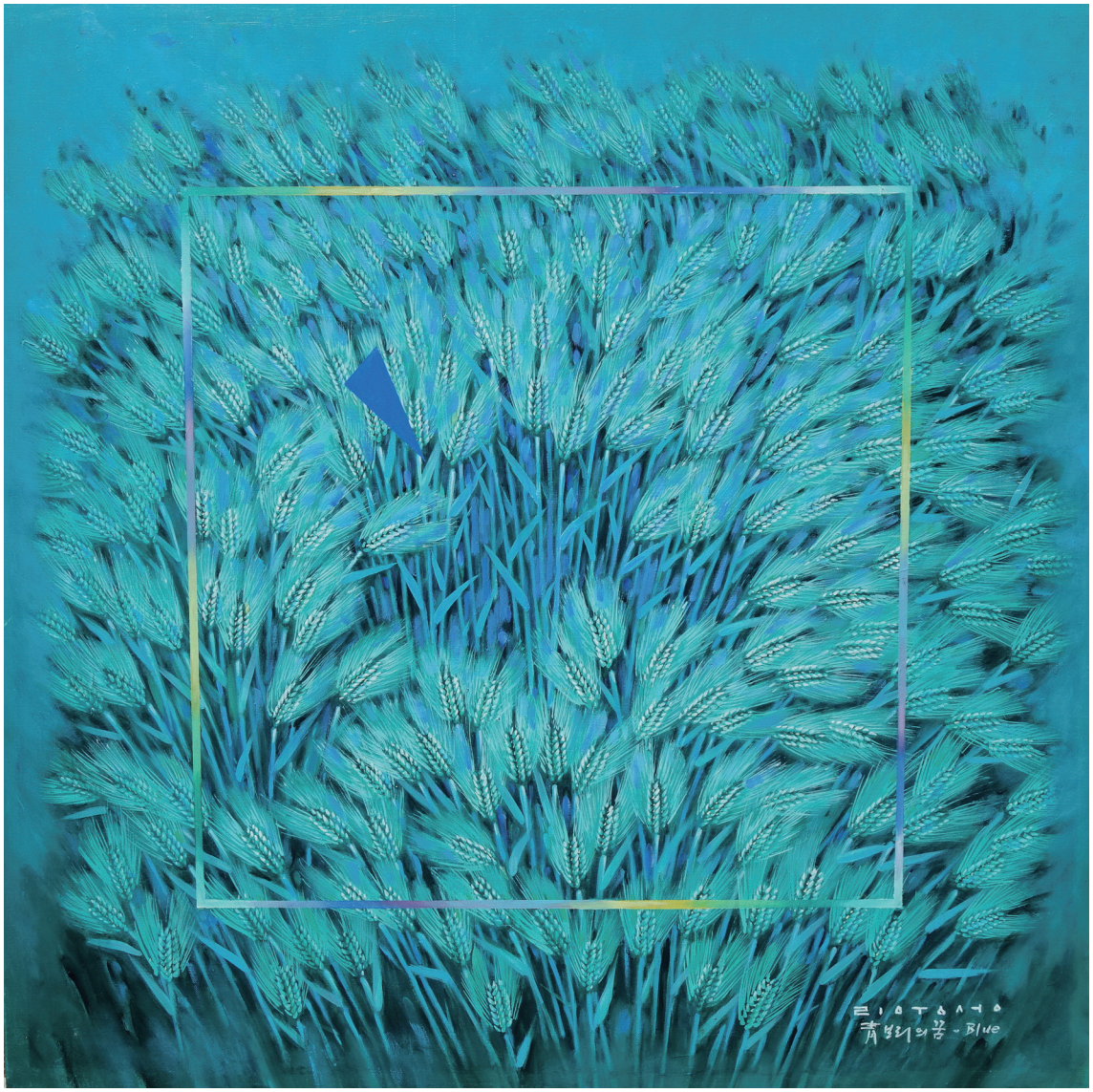
그런 그리움이 초기에 풍경화 작업에서 청보리를 모티브로 한 green painting 작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보리(풋보리)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보릿고개 시절 생존의 별미였으며 그로 인한 연민의 정은 지금은 없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다.

나의 작품에는 기독교적 감성이 담겨있다고 한다. 그것은 작가의 내면 세계의 발로가 아닐까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청보리의 생태적 이미지를 몇 개의 말로 집약하면 '생명-평화-희망'이다. 이것은 좌절, 절망, 상실의 오늘의 세대가 갈망하는 절대적인 치유의 가치이며 메시지라는 사실이다. 또한 나의 〈청보리의 꿈〉 작업의 동기이며 의도이기도 하다.

봄이 오고 있다
145×112cm, Oil on Canvas, 1983



청보리의 꿈 – Blue
100×100cm, Oil on Canvas, 2013

청보리의 꿈 – Yellow
100×100cm, Oil on Canvas, 2013

청보리의 꿈 – 그때 보리 마당에서
100×100cm, Oil on Canvas, 2019

정다운

아름다운 목포!
목포는 항구다. 어딜보나 그림이고 낭만이 깃든다.
뱃고동 소리에 가슴을 울렁이며 유달산을 오르면 만선의 배는 석양 속에서 노래 부르며 갈매기는 파도따라 춤을 추며 축배를 든다. 나는 60년 동안 멋진 시민 정서 속에 젖어들어 작품활동에 매진하고 있는가 보다.

서해의 영광 1
116×89cm, Oil on Canvas, 1990

서해의 영광 2
91×65cm, Oil on Canvas, 1990

휴선
145×112cm, Oil on Canvas, 1991

안나푸르나 설경
116×89cm, Oil on Canvas, 2005

초원 주권옥

동양 예술의 창조는 정신과 물질의 사상적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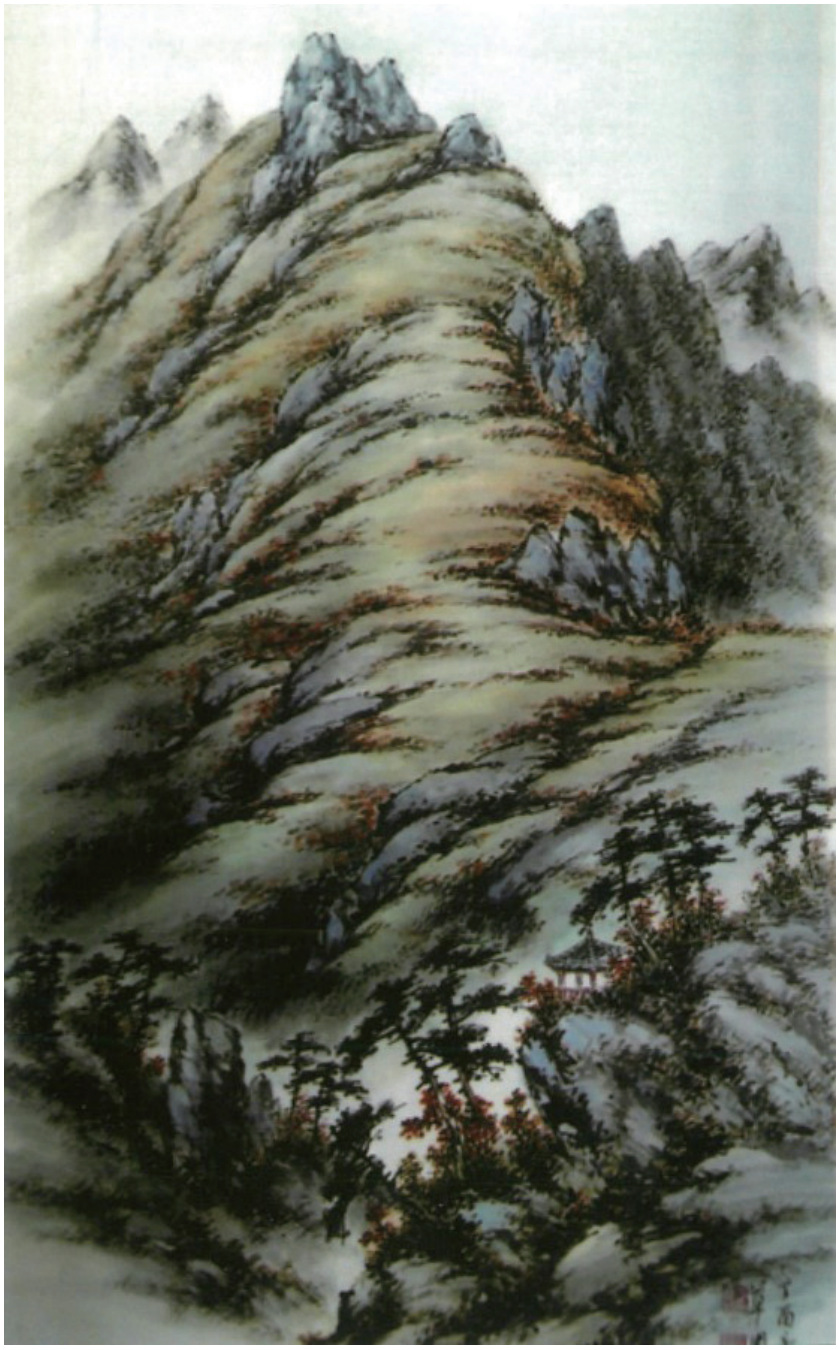
붓을 들어 작품 제작에 임하면 잡념이 사라지고 필 한점 한점에 열과 성을 다하여 완성이 되었을 땐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할 행복에 젖어 들곤 합니다.

완성된 작품들은 보는이로 하여금 추억 속에 젖어들며 마음의 평안과 힐링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추색
137×77cm, 화선지, 먹, 물감, 2022

해변의 정
115×70cm, 화선지,먹, 물감, 2022

춘색
112×72cm, 화선지, 먹, 물감, 2024



추용
65×110cm, 화선지, 먹, 물감, 2021

초대작가 약력 Profile

목천 강수남

전남 진도군 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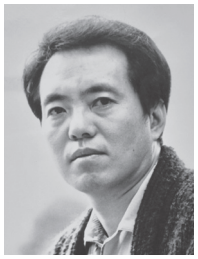
개인전 3회
- 2017(목포문화예술회관)
- 2009(목포문화예술회관)
- 2004(목포문화예술회관)
- 2002(예술의 전당)

단체전 400여회
- 목천필묵서회전
- 국제서예가 협회전
- 한국미술협회 목포지부 회원전
- 예향별들의 전
- 전남서예가 남도화합교류 묵향의이음전
- 목포-나주,익산 평화미술제

수상경력
- 전라남도 명예예술인 지정(2023년)
- 목포시 문화예술 공로상 수상(2022년)
- 전라남도문화상 수상(2016년)
- 송곡서예상 수상
-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우하예술문화상 수상

작품 소장처

전라남도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흥지청,
목포경찰서, 목포세관, 목포세무서,
서해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대학교,
목상고등학교, 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경영행정대학원, 임자면사무소



일포 곽창주

전남 진도군 출생

개인전 17회
- 목포MBC 창사기념 초대전(목포)
- 모색과 사유전(광주)

단체전 300여회
- 23년 전남수묵 비엔날레 이안미술관 초대전
- 한국 현대 미술 LA페스티벌 초대전
- 한국 수묵 인도네시아 초대전
- 한국미술협회 목포지부 초대전

수상경력
- 전라남도 명예예술인 지정(2023년)
- 한국미협 미술인상 수상
- 전남도 미술인상 수상
- 남농미술상 수상

작품 소장처

전남도청, 목포지방법원,
목포한국은행, 목포경찰서,
광주시교육청, 국립현대미술관

한솔 김광숙

전남 신안군 비금면 출생

개인전 1회
- 목포역미술관 개인전(목포 최초 한글서예전)

단체전 4회
- 사) 국제 서법 예술 연합 회원전
- 영호남 상생교류전
- 한·중서화정예 작가회전(광저우, 낙양, 서주)
- 한국미술협회 회원전

수상경력
- 전라남도 명예예술인 지정(2023년)
-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특선, 입선 수상
- 대한민국동양미술대전 대상 수상
- 전라남도미술대전 특선 4회 수상

작품 소장처
해양경찰청 현판, 해군제3함대 사령부 표지석, 목포경찰서 경찰헌장,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의 노래, 목포사랑의교회 등

남강 박재옥

전남 목포 출생

개인전 16회
- 2024 오거리문화센터
- 2023 오거리문화센터
- 2023 목포우체국
- 2022 오거리문화센터
- 2021 인사아트센터
- 2021 현대삼호호텔
- 2021 성옥미술관
- 2020 롯데아울렛

단체전 300여회
- 목포미협전
- 오거리문화센터 회원전
- 목포영주교류전
- 목포강릉나주 회원전
- 나무포구회원전
- 붓사회 창립전
- 원로작가초대전
- 전업작가회원전
- 제주꼬리달린빗자루 초대전

수상경력
- 전라남도 명예예술인 지정(2023년)
- 공무원미술대전 대상 수상
-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특선 수상
- 남농예술문화상 수상
- 목포미술인상 수상

작품 소장처
벳부시청, 연운항시, 목포시청, 목포상공회의소 제주도 365의원

손영선

전북 정읍 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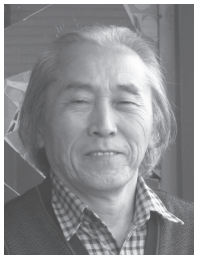
개인전 20회
- 부산 국제아트페어 참여(2021년)
- 대구 국제아트페어 참여(2022년)
- 서울 코리아 아트페어 (2022년)
- 리빙아트페스타(2023년)

단체전 300여회
- 목우회 회원전
- 신작전 회원전
- 대한민국 회화제 초대 출품

수상경력
- 전라남도 명예예술인 지정(2023년)
- 대한민국예총 예술(미술) 대상 수상
- 원진미술대상 수상
- 남농예술문화상 수상
- 전남미술상 수상
- 전라남도 문화상 수상

작품 소장처
목포시청, 국립현대미술관, 목포지방법원, 목포의회, 목포세무서, 목포중앙병원, 뉴욕현대미술관

초대작가 약력 Profile



이웅성

전남 목포 출생

개인전 14회
- 전라남도청갤러리
- 성옥문화재단갤러리
- 현대호텔갤러리
- 독일다름슈타트 시립갤러리
- 신선미술관 외

단체전 250회
- 자연의 현대적 시각 전(갓바위미술관)
- 하늘위의 파랑새전(이안미술관)
- 원로작가초대전(유달미술관)

수상경력
- 전라남도 명예예술인 지정(2023년)
- 남농예술상 수상
-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상 수상
- 한국예총문화 공로상 수상

작품 소장처
목포시청 및 목포시의회, 전남 서해경찰청, 목포신안비치호텔, 목포항만청, 목포고등학교, 목포한국병원 외

정다운

전남 담양군 출생

개인전 12회
- 전남 문화상 수상자 개인전(도립도서관)
- 세종문화관 전시(한국미술조망전) 개별전시
- 서울갤러리 전시(프레스 센터)
- 목포 문화예술회관 전시
- 목포 문화방송(MBC) 전시

단체전 300여회
- 한·일 교류전 광주화우회·일본 (가고시마, 요나고, 쎈다이)
- 목우회원전
- 한국현대작가전(KAMA)
- 전우회원전(전남, 전북, 광주 회원)
- 삼목회원전

수상경력
- 전라남도 명예예술인 지정(2023년)
- 국민훈장동백장(1999) 수상
- 한국예총 예술문화대상(2007) 수상
- 전라남도 문화상 도지사(2011) 수상
- 목포예술문화공로상(목포시장 1989) 수상
- 장한목포시민상(백년회 2021) 수상

작품 소장처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목포시 MBC, 목포시립문화원, 목포시

초원 주권옥

전남 해남군 출생

개인전 12회
- 12회 개인전 유달미술관(2022. 9. 17. ~ 30)
- 11회 개인전 문화예술회관(2018. 5. 21. ~ 26)
- 10회 개인전 목포역미술관(2015. 10. 17. ~26)

단체전 200여회
- 한국미술협회 목포 회원전(2023. 6. 16. ~ 22)
- 목포·나주·익산 평화 미술 교류전(2023. 7.28. ~ 8. 2)
- 목포·나주·익산 평화 미술 교류전(2022. 8.12. ~ 17)

수상경력
- 전라남도 명예예술인 지정(2023년)
- 대한민국 사회교육문화상 수상(1989. 7. 3)
- 문화예술인상 수상(2015. 10. 2)
- 목포미술인상 수상(2013. 10. 20)

작품 소장처
목포시, 전라남도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2024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봄시즌 특별초대기획전시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목포) 미술전

주최·주관	목포시
발행처	목포시 문화예술과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인쇄일	2024. 5. 1
발행일	2024. 5. 1
전시·기획	김유진
제자(題字)	서예가 죽전 송홍범
디자인	화성디자인 T. 061-274-1333

본 팜플렛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초대작가와 목포시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58729 전남 목포시 유달로 116 ☎ 061-270-8300